

VNL 1승6패...해설위원들이 본 여자대표팀

“주전선수 바뀌면서 리셋 상황” -한유미
 “손발 맞추며 시스템 만들어야” -이숙자

여자배구대표팀이 7일(한국시간) 벌어진 2021 발리 볼네이션스리그(VNL) 이탈리아와 예선리그에서 세트 스코어 1-3으로 패했다. 이번 대회 6패(1승)째이자 최근 5연패다. 전체 16개국 중 15위(승점 4)로 처졌다. 도쿄 올림픽 본선을 앞둔 준비과정이지만, 팬들은 지금의 결과에 아쉬워한다. 스포츠동아는 대표팀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VNL을 해설하고 있는 이숙자, 한유미 KBSN스포츠 해설위원에게 대표팀의 상황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유미 해설위원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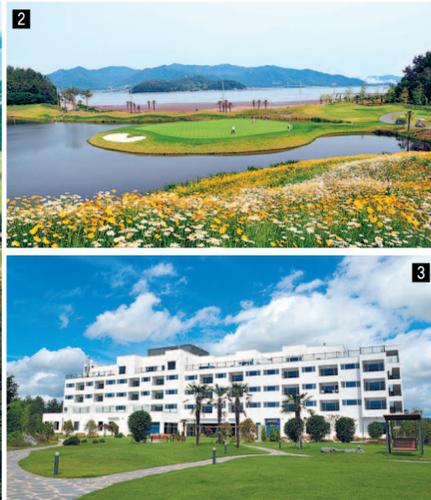
“지금 우리 대표팀은 리셋 상황이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부임해 가꾸놓은 시스템이 있었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 대회가 열리지 않아 시스템을 가다듬을 기회가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VNL을 앞두고는 많은 주전선수가 바뀌는 바람에 처음부터 다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단계다. 감독도 지금 많이 당황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세터 안혜진이 무릎 이상으로 출전하지 못해 감독은 염혜선, 김다인 2명의 세터 외에는 대안이 없다. 선수교체를 통해 방법을 찾고 있다. 우선 감독이 원하는 연결의 높이와 스피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배구는 받고 연결하는 부분이 안정되면 다른 것은 편해진다. 선수들도 힘들 것이다. VNL은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 풀이 많아야 하는데, 우리는 절대인원이 적어 더 힘들다. 이번 대회를 통해 올림픽 본선에서 상대팀 팀의 분석을 마치고 우리 시스템을 더 다듬으면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에 희망을 갖고 있다.”

●이숙자 해설위원의 분석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놓쳐서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갖고 기다려줄 수밖에 없다. 워낙 많은 선수가 바뀌어서 손발을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동안 항상 우리 대표팀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 이 문제점을 모두가 다 알지만 해결할 근본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결과만 놓고 고생하는 대표선수들을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어린 선수들이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이기는 경험을 더 많이 쌓았으면 좋겠다. VNL에서 라바리니 감독은 이기기 위해 상대팀을 철저히 분석하기보다는 우리의 시스템을 맞추는 데 더 주력하고 있다. 감독은 VNL에서 12명의 올림픽 출전 멤버를 정하려고 한다. 베스트 멤버가 좋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준비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김경진 기자 marco@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김맹녕의 명문 골프장 탐방 | 강진 다산베아채CC



1 전남 강진군의 다산베아채CC는 14개 홀이 바다와 인접한 시사이드 코스가 많아 아름다운 해안선과 어우러져 절경을 자랑한다. 사진 뒤쪽의 가우도와 연결하는 716m의 망호출렁다리는 인증샷을 찍고 싶은 명소다. 2 시그니처홀인 장보고 코스 6번 파3홀은 아름다운 금계국 꽃이 활짝 핀 홀로 유명하다. 3 스위트룸 등 52개 객실을 갖춘 가족형 리조트 . 사진제공: 다산베아채CC

바다 인접한 14개 시사이드홀 절경

코스별 만덕산·가우도·강진만 한눈에 분지형...논·바람 없어 겨울골프 메카 햇빛·바람·물...자연 담은 필드 디자인 콘도 부대시설 다양...가족여행지로 딱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 위치한 다산베아채 골프&리조트는 강진만의 보석으로 불린다. 봄이 제일 먼저 오고 겨울이 가장 늦게 오는 골프장으로 콘도를 갖춘 종합 리조트다. 다른 지역에 비해 눈이 없고 바람도 없는 분지형이어서 겨울 골프의 메카로 유명하다.

강진만이 눈앞에 펼쳐지는 다산베아채 CC는 '남도 골프 1번지'라는 호칭답게 절경을 자랑한다. 근화건설이 2018년 11월 문을 연 신생 대중제 골프장이지만 오래된 골프장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조경이 인상적이다. 햇빛, 바람, 물, 자연을 필드에 담은 디자인으로 유명한 일본 설계자 구로사와 나카모(黒澤長夫)가 50만 평에서 설계한 3개 코스로 각 홀마다 개성이 강하다.

강진은 장보고의 해상무역 중심지였고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문화이 꽃피운 곳이다. 총 27홀로 각 코스는 강진의 지리적,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장보고', '다산', 그리고 '베아채'로 명명했다. 코스마다 다양한 특징이 있어 골퍼들은 흥미와 긴장감을 함께 맞출 수 있다. 특히 14개의 바다에 인접한 시사이드(seaside) 홀은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한다.

●코스마다 이채로운 구성

이 골프장에는 코스별로 흥미 있는 이야기 거리가 있다.

- ① 다산 코스는 만덕산을 바라보고 샷을 하면 지혜가 쌓이고,
- ② 베아채 코스는 가우도를 바라보고 샷을 하면 사랑이 쌓이고,
- ③ 장보고 코스는 강진만을 바라보고 샷을 하면 재물이 쌓인다.

다산 코스(3237m)는 정면에 만덕산이 있으며 강진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코스이다. 넓은 페어웨이에 엷다운이 적고 평탄하여 여성, 시니어, 초보자에게 적합한 레이아웃이 특징이다. 7, 8번 홀은 이른바 '쌍둥이 홀'로 후박나무 군락지가 우거져 있다. 코스 중앙에는 250년 된 후박나무가 위용을 자랑한다.

베아채 코스(3288m)는 단테의 신곡 여주인공 베아트릭체의 줄임말로 단테가 평생 연모하며 시(詩)로 삼았던 여인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골프로 담아냈다. 해안에 낮은 구릉 자연경관을 그대로 활용한 아기가자기한 레이아웃과 신수와 같은 조경은 골퍼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한다. 특히 5번 홀 그린 뒤에는 높게 자리잡은 그늘집이 있다. 여기서 보면 정면에는 잔잔한 강진만이 내려다보인다. 기후, 계절, 시간대에 따라 다양한 풍경과 운치를 자랑한다.

장보고 코스(3131m)는 강진의 도자기를 완도를 거쳐 중국과 일본으로 수출하던 장보고의 기상을 생각하게 하는 코스로 호쾌한 장타를 즐길 수 있다. 홀 구성

도 파3, 파4, 파5가 각각 3개씩으로 재미를 배가한다.

강진만의 바다와 남도의 숲, 좌측 주작산의 기암괴석이 각 홀 굽이굽이 수채화처럼 멋지게 다가온다. 특히 시그니처 홀인 6번 파3홀(127m)은 큰 호수 가운데 그린에 자리한 아일랜드 홀로 티 박스에 오르면 가우도가 손에 잡힐 듯 다가와 있다. 좌우로 넓게 펼쳐진 그린과 그 뒤를 받치는 강진만, 그 위에 우뚝 선 가우도는 그야말로 한 폭의 동양화 같다. 편안함으로 다가야 그맛을 음미할 수 있다.

●남도의 맛과 섬, 고품격 골프 리조트

골프 코스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한 리조트형 콘도미니엄에는 수영장, 어린이 페팅 연습장, 야외 가든 파티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단위 여행지로도 적격이다.

리조트 콘도는 18평형, 40평형, 80평형 스위트룸 등 52실 규모의 다양한 객실이 있다. 골핑은 물론 가족과 함께 주말과 연휴를 즐기기엔 완벽한 체류시설을 갖추고 있다.

골프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가우도는 꼭 가보아야 한다. 가우도와는 저두출렁다리(438m)와 망호출렁다리(716m)로 연결되어 있다. 골프장에서는 망호출렁다리로 건너갈 수 있다. 해안선을 따라 걷는 '함께 해길'은 아름다운 나무다리를 통과하는 트레킹 코스(2.5km)를 걸으며 산과 바다를 즐길 수 있다. 시간을 더 할애하면 생태자원과 백련

사, 다산 초당 등 풍부한 문화 역사 자원을 체험할 수 있다.

남도에서 어찌 먹거리를 빼놓으랴. 남도 골프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는 음식이다. 맛의 고장답게 주변에 신선한 식재료와 다양한 먹을거리가 즐비하다. 베아채 CC가 국내의 대표적인 체류형 골프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청정 남해에서 막 잡아 올린 생선회와 미역, 해초, 가리비, 굴베이가 도심생활에서 지친 골퍼들에게 활기를 준다.

●아름다운 코스 관리와 고객 서비스

이 골프장에 2019년 6월 부임한 김흥길 사장은 안양베네스트, 아시아나, 뉴서울, 일죽 썬밸리 등 골프장에서 32년 잔뼈가 굵은 전문 경영인이다. '남도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편안한 골프장'이 그의 경영철학이다.

개장한 지 3년 밖에 안 됐지만 골프장 경영과 관련 관리가 20년 된 골프장 못지 않게 완벽하다. 완벽한 코스 관리, 직원 관리와 캐디 운영도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짧은 기간에 체험한 다산베아채CC&리조트이지만 지금도 남도의 아름다운 골프장 전경과 완벽한 서비스, 트레킹 추억 그리고 남도의 해산물 요리가 지금도 생생하게 머리를 땀는다.

골프클럽리스트: 대한골프전문인협회 회장 26567088@naver.com

sports2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결과

프로야구 기록실 (7일)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무	승률	개최	연속	타율	방어율	홈런	득점	실점	출루	도루	실책
1	SSG	50	29	21	0	0.580	1	승	.259	4.74	.565	259	259	63	41	46
2	L G	52	29	23	0	0.558	1.0	2	승	0.251	3.78	0.577	233	213	47	36
3	삼성	52	29	23	0	0.558	1.0	1	승	0.274	4.29	0.615	262	244	48	32
4	N C	51	27	23	1	0.540	2.0	1	패	0.277	4.58	0.500	301	259	74	32
5	두산	50	27	23	0	0.540	2.0	1	패	0.277	4.08	0.538	262	224	45	17
6	K T	50	27	23	0	0.540	2.0	1	패	0.277	4.33	0.577	279	245	34	41
7	키움	53	26	27	0	0.491	4.5	1	패	0.261	4.26	0.536	276	254	32	41
8	K I A	50	21	29	0	0.420	8.0	2	패	0.256	5.43	0.429	204	290	16	27
9	한화	51	20	31	0	0.392	9.5	1	승	0.239	4.82	0.417	222	268	29	35
10	롯데	51	19	31	1	0.380	10.0	1	승	0.270	5.43	0.261	256	298	41	27

●타격

순위	선수	팀	타율	경기	타수	안타	홈런	득점	타점	도루	4사	삼진	실책	특징	OPS
1	강백호	K T	0.411	50	190	78	7	27	47	4	32	29	9	0.400	1.078
2	양의지	N C	0.358	50	165	59	11	37	47	1	37	18	1	0.490	1.109
3	이정후	키움	0.355	52	197	70	1	39	35	5	36	15	3	0.333	0.967
4	강민호	삼성	0.354	44	147	52	6	19	30	0	15	20	1	0.319	0.930
5	피넬라	삼성	0.341	52	214	73	13	40	40	5	18	29	0	0.319	0.968
6	박민준	두산	0.340	48	191	65	7	35	29	0	23	14	0	0.341	0.891
7	박건우	두산	0.333	41	147	49	2	26	25	3	20	20	0	0.381	0.843
8	최현준	K I A	0.329	39	210	69	1	34	19	13	26	25	4	0.267	0.813
9	허경민	두산	0.323	46	186	60	3	27	18	1	13	14	0	0.225	0.784
10	김현수	L G	0.322	50	180	58	8	27	33	0	29	21	0	0.234	0.913
11	전준우	롯데	0.318	51	192	61	2	28	28	2	34	24	0	0.408	0.826
12	송창기	L G	0.311	52	183	57	3	39	24	10	50	27	0	0.326	0.872
13	안치홍	롯데	0.310	44	174	54	2	30	33	2	22	26	2	0.408	0.832
14	최현준	L G	0.309	39	149	46	7	26	29	2	13	31	1	0.326	0.887
15	박해민	삼성	0.302	49	172	52	3	31	25	19	26	28	0	0.311	0.787
16	노진혁	N C	0.301	45	146	44	5	20	25	1	20	37	2	0.308	0.818
17	알타이	N C	0.299	51	177	53	13	32	35	5	22	48	1	0.267	0.949
18	배정대	K T	0.295	50	183	54	3	37	24	6	35	38	1	0.294	0.818
19	최정	SSG	0.294	48	160	47	12	33	35	5	39	41	4	0.263	0.987

※ 득점권 타율 = 주자 2루, 3루, 1:2루, 1:3루, 2:3루, 만루시 타율 OPS = 출루율 + 장타율

●평균자책점

순위	선수	팀	방어를 경기	이닝	실점	자책	승	패	세	안타	출루	삼진	4사	피타율	WHIP
1	로켓 두산	1.87	11	67.1	14	6	3	0	64	1	54	26	0.251	1.26	
2	수아베스 L G	1.99	11	63.1	19	14	7	2	40	3	67	27	0.208	1.15	
3	테스피에 K T	2.37	12	68.1	25	18	5	4	54	3	62	35	0.213	1.27	
4	최현준 두산	2.40	10	56.1	15	16	0	0	51	5	41	17	0.237	1.14	
5	부캐년 삼성	2.63	11	65.0	22	19	6	2	56	3	63	23	0.228	1.22	
6	원태인 삼성	2.66	10	61.0	19	18	7	3	56	4	59	23	0.246	1.28	
7	카펜터 한화	2.67	11	64.0	26	19	2	5	50	4	70	34	0.211	1.22	
8	박준호 SSG	0.82	9	54.1	19	17	4	2	40	2	41	24	0.205	0.95	
9	문승원 SSG	0.86	9	50.1	20	16	2	2	42	1	32	20	0.220	1.19	

※ 피타율 = 안타 ÷ 타수 WHIP(이닝당 출루 허용) = (안타+방울) ÷ 이닝

메이저리그 (7일)

●경기결과

팀	스코어	타수	안타	홈런	득점	실점	피타율	WHIP
밀워키	2-0	애리조나	보스턴	6-5	(연장10회)	뉴욕Y		
신시내티	8-7	SL 루이스	볼티모어	18-5	클리블랜드			
마이애미	3-1	피츠버그	휴스턴	6-3	토론토			
미네소타	2-1	캔자스시티	필라델피아	12-6	워싱턴			
콜로라도	3-1	오كل랜드	시애틀	9-5	LAA			
사카고C	4-3	샌프란시스코	뉴욕M	6-2	샌디에이고			
시카고W	3-0	디트로이트	탬파베이	7-1	텍사스			
애틀랜타	4-2	LAD						

NBA (7일)

●경기결과

팀	스코어	타수	안타	홈런	득점	실점	피타율	WHIP
LAC	126-111	달라스	애틀랜타	128-124	필라델피아			

NHL (7일)

●경기결과

팀	스코어	타수	안타	홈런	득점	실점	피타율	WHIP
몬트리올	5-1	워니펙	베가스	5-1	콜로라도			

프로골프 (7일)

●PGA TOP10

메모리얼 토너먼트 최종라운드

순위	선수	타수	스트로크	타점	득점	실점	피타율	WHIP
1	① 캔틀레이(미국)	-13	② 모리카와(미국)	-13	③ 세를러(미국)	-11		
2	④ 그레이스(남아공)	-10	⑤ 리드(미국)	-8	⑥ 워커(미국)	-6		
3	⑦ 라우라(아일랜드)	-6	⑧ 호바(미국)	-6	⑨ 김시우(한국)	-5		
4	⑩ 와이즈미(미국)	-5	⑪ 강성훈(한국)	+1	⑫ 이경원(한국)	+10		

●LPGA TOP10

US 여자오픈 최종라운드

순위	선수	타수	스트로크	타점	득점	실점	피타율	WHIP
1	① 사시(필리핀)	-4	② 나사(일본)	-4	③ 통스(미국)	-3		
2	④ 김(미국)	-2	⑤ 팡산신(중국)	-2	⑥ 예인원(미국)	E		
3	⑦ 고진영(한국)	+1	⑧ 박인비(한국)	+1	⑨ 리시위(중국)	+1		
4	⑩ 이정은(한국)	+2	⑪ 김세영(한국)	+4	⑫ 김효주(한국)	+5		

아마추어 경기결과 (7일)